

## 대립만 있는 온라인음악 시장

얼마 전 디지털음악산업 발전협의체가 문광부에 소리바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소리바다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월 3,000원의 무제한 정책제 서비스가 온라인 음악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협의체는 소리바다의 네거티브 필터링 제도와 음원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요금체계에 대해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렇듯 음원업체와 P2P업체, 온라인음악 사이트 간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끝날 줄 모르고 날 선 대립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음악포털 사이트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1만원만 내면 1,000곡의 노래를 한달 동안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곡당 가격이 10원인 셈인데, 음원 권리자들이 보면 복장 터질 노릇입니다. 이 업체는 음원 권리자들에게는 기존 곡당 500원의 요율을 적용하므로 피해가 가지 않고,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음원 보유 업체들은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장이 이러한 업체들의 행동에 의해 다시 혼탁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온라인음악 시장은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사용자들의 접근도 쉽고, 유료화도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 주도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탄원·고소·고발 등의 삭막한 단어가 아주 익숙한 시장이죠. 말로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란 서로 간 양보 없이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에서 정작 음악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수>

## 미래에 대한 투자

올 상반기 코스닥에 등록된 DC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어느 때 못지않게 부침이 심했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통해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업체 중에선 올 상반기 급격한 실적 하락을 경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성장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 코스닥 DC업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유독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방화벽의 대명사로 불린 시큐어소프트, 어울림정보기술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침입탐지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방화벽을 국내 시장에 뿌리를 내린 주인공들입니다. 이중 시큐어소프트는 정부의 K4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업이 됐고 뒤를 이어 어울림이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당시에는 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만이 정부, 공공기관에 방화벽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방화벽 시장을 선점하게 된 시큐어소프트, 어울림정보기술은 보안 분야의 대표업체로 부각되며 코스닥에도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이후 시큐어소프트, 어울림정보기술 등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보안시장 전체가 하락세인 것도 큰 이유였지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시큐어소프트와 어울림정보기술 등은 비 보안 분야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화려했던 과거만큼이나 향후 어떤 성과를 올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석>

